「리베르만」論爭과 實際

姜　濱　口

<目　次>

I. 序　言
II. 「드러커」利潤論의 吟味
III. 「리베르만」論爭의 展開와 背景
IV. 「리베르만」理論의 槪要
V. 「리베르마니즘」에 대한 反論
VI. 「리베르마니즘」의 實驗과 蘇聯經濟變化의 內容
VII. 蘇聯經濟改革의 評價 및 그 問題點
VIII. 結　語

I. 序　言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個別的 資本의 運動法則에 관하여는 從來의 經營學 또는 經濟學에서 이미 充分히 探究되어 온 바 있다. 그 結果 이 個別資本은 $G—W\cdots P\cdots W'—G'$ 라는 運動方式을 取하면서 資本主義的 私的所有에 依據하는 資本家들의 私的 利潤追求에 의하여 活動한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로 되어 왔다. 이렇게 資本主義的 個別資本은 各己 獨立的으로 剩餘價値의 增大, 따라서 利潤의 極大化를 指向하여, 社會的 全體的인 別定의 計劃 없이 제각기 活動하게 되는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利潤이란 槪念은 資本主義社會 特有의 것으로서 資本家 또는 資本에 대한 成果의 分配라고 생각되어오기도 한 것이다. 이는 특히 企業의 成果가 企業家의 營利性을 保障하는 同時에 全體的인 經濟性의 目標를 達成할 수 있었던 過去의 豫定的 調和가 可能했던 時期에 더욱 그랬던 것이다.

그 反面, 오늘날에 와서는 經營理念 및 企業目的에 관한 諸理論의 發展으로 因하여 從來의 利潤槪念이 많은 修正을 받아온 바 있으며, 또 특히 美國의 경우 制度學派的 立場에서 본 株式會社 信用制度의 發達 및 株式의 大量的 分散, 勞資關係의 重大化, 市場問題의 多岐化, 專門的 技術로서의 經營管理의 認識등에서 오는 社會的 經濟的 諸與件의 變化로 因하여 이 利潤槪念도 必然的으로 變遷해온 事實을 無視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여하튼 利潤은, 그것이 企業目的 그 自體가 아니라 原因이며 經營成果의 判定者라고 主張하고 必要最低利潤의 實現을 企業의 第一原則으로 理解하는 「드러커」(P. F. Drucker)의 見解에 일단 同意하더라도 그것이 營利主義 내지는 營利原則의 長期化이며 制度化 내지는 企業의 法則과 客觀的 必要에 基因하는 顧客創造主義的 營利主義라는 點에서, 依然히 資本主義經濟의 가장 特有한 槪念이며 核心的인 動機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企業性質의 發展變化에 따라 資本家的 利潤追求의 原則이 完全히 排除되어 完全한 經營者社會가 到來하여도 이는 그 主體에 變化가 생겨서 利潤追求의 內容이 變한다는 事實을 指摘하는 것이지 利潤動機 그 自體의 消滅 또는 根本的인 變質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資本主義經濟 特有의 利潤(profit)이라는 語彙가 共產主義社會를 指向한다는 社會主義國家, 특히 蘇聯에서 갑자기 經濟擔當者들의 第一義的 論議의 對象이 되어온 바 있으며, 이를 우리는 外紙를 통하여 「리베르만」論爭이라는 命名下에 알게 된 것이다. 또는 外紙들의 斷片的인 報道로 因하여, 「리베르만」이란 이름과 利潤槪念이 密接하게 傳해 짐으로써 「리베르만」理論의 中心槪念은 利潤이며 그 理論의 目的은 蘇聯社會에 資本主義的인 利潤動機를 導入함에 있는 것으로 傳해지기도 한 것이다.

「리베르만」論爭은 「하르코프」(Kharkov)大學(「우크라이나」所在)의 「리베르만」(Liberman)敎授가 1962年 9月 9日 「프라우다」(Pravda)紙에 發表한 「計劃·利潤·奬勵給(premium)」이란 題目의 論文에서 發端하였다고 한다. 그 以後 「크레믈린」의 主人公이 바뀌고서 論爭은 다시 表面化하고 모든 經濟學者, 經濟擔當者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어오다가, 「리베르만」의 理論이 部分的으로 數個 企業體에서 實驗되기까지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에서 우리의 關心을 불러일으키는 問題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蘇聯이 果然 資本主義的 着想에 의하여 利潤을 社會主義的 生產의 原動力으로 制度化하려는 것인가? 또는 그들의 高位政策樹立者들이, 最終消費者가 願하는 대로 各都散賣業者들이 注文함으로써 生產工場들이 消費者爲主의 製品生產을 하게 하여 一種의 市場生產에 의하여 形成될 價格의 適用으로 最大限의 利潤의 創出을 許容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은 從來까지 實施해 오던 計劃生產 또는 經濟計劃의 失敗를 自認한 것일까? 요컨대 利潤과 共產主義라는 두 語彙의 結合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不條理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一種의 社會主義的 生產의 資本主義化가 아닌가 하는 自問을 招來하는 것이다. 外國의 수많은 學者들도 이러한 疑問을 가져왔다고 하며, 斷片的으로나마 「리베르만」의 理論이 우리나라에 傳해졌을 때도 이와 同一했던 것이다.

그러나 外信들을 綿密히 分析한 後, 結論부터 말하면, 이 利潤에 관한 討論은 아직은

우리가 믿었던 것 만큼 深大한 經濟革命에 該當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過去의 經濟計劃의 樹立節次 및 方法과 그 目標達成에 必要한 手段 및 方法등을 修正·補完함으로써 加一層의 完璧을 期하자는데 그 目標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必要한 刺戟劑로서 利潤의 實現을 奬勵하여야만 經濟計劃達成에 有利하다고 생각된 것이며, 따라서 必要한 만큼의 自由主義的 傾向을 許容하자는 것이다. 即 經濟計劃과 企業經營의 形態의 修正이지 그 性格이나 本質의 修正이 아닌 것이며, 經營體에게 더욱 큰 自主性을 附與하여 過去의 慢性的인 中央集權的 官僚主義方式의 弊端을 止揚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利潤은 限定된 範圍內에서 어느 程度 企業經營의 成果測定을 위한 道具로 될 수는 있어도 資本主義的 利潤動機와는 顯著한 距離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利潤의 配分方式의 原則에 관하여는 더욱 그런 것이다.

여하간 利潤의 導入은 蘇聯에서의 經營의 自由主義的 色彩를 띠게 하는 만큼, 아직도 繼續되고 있는 「리베르만」論爭은 「마르크스」主義 經濟 및 經營理論의 한 重要한 發展段階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多元化過程 下에 있는 現世界의 政治·經濟·社會의 諸事情에 비추어 資本主義社會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에게도 蘇聯內의 이러한 變遷을 注目해두는 것은 重要한 일일 것이다. 또한 社會主義國家에서는 거의 모든 個別資本이 社會主義的 所有下에 있음으로써 國有企業의 形態를 取하고 國家經濟計劃의 實現者로서 臨하는 反面, 우리나라와 같은 資本主義國家에서도 政府의 計劃生産을 擔當하는 公企業들이 數多히 存在하므로 그 比較의 資料로도 有益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利潤 및 利潤性의 原則이 資本主義經濟의 原則일 뿐 아니라 共産主義經濟의 原則도 된다고 생각하는 「P. F. 드러커」의 利潤論을 吟味한 다음, 外信資料(1)들을 綜合하면서, 「리베르만」論爭의 展開過程, 原因, 目的, 實驗, 및 問題點들을 整理해 봄으로써, 蘇聯經濟 및 企業經營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드러커」利潤論의 吟味

社會主義國家에 利潤槪念이 導入된다면 그것이 社會主義的 生産의 資本主義化가 아닌

(1) 本稿는 주로 다음의 記事 및 論文들에 依據하여 論述한 것이다.
a. *Problèmes Economiques* 에 發表된 論文: "La réforme des méthodes de gestion éocnomique en Union Soviétiques" (du 5 oct. 1965); "La réforme de la gestion économique en Tchéco-slovaquie (du 23 nov. 1965); "La réforme des prix en Tchécoslovaquie" (du 28 déc. 1965); "Le dilemme de l'économie soviétique" (du 20 janv. 1966)
b. *Monde Hébdomadaire* 에 揭載된 記事 (836, 852, 853, 854, 871, 874 號)
c. *Le Monde* 紙에 揭載된 記事: 揭載日字 18.11.62, 21.11.62, 2.12.62, 2.10.65, 12.10.65., 1.11.65, 10.11.65, 13.11.65, 8.1.66)

가 하는 疑問과 聯關하여 想起되는 것은 「드러커」의 利潤 및 利潤性(profitability)에 관한 理論일 것이다. 왜냐하면 「드러커」는 그의 利潤 또는 利潤性槪念이 經濟體制 또는 社會體制의 相違와는 關係없이 産業的 社會下에서 또는 産業的 企業이 存在하는 限 그 機能을 遂行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우선 利潤은 經營者의 諸決定에 있어서 唯一한 準據가 되는 것이며, 이는 『自由企業經濟에서 뿐 아니라, 同時에 集産主義的 計劃的經濟에 있어서도』(2) 同一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利潤性은 個人主義下에서와 마찬가지로 集産主義下에서, 또는 自由企業體制下에서나, 政府支配와 政府所有下에서도 同一하게 活用되며 同一한 方法으로 作用한다』(3)는 것이다. 結局 「드러커」는 利潤 및 利潤性의 原則이 그것이 産業經濟時代의 것이라는 前提下에서라면 唯獨 資本主義經濟의 原則이 될 뿐 아니라, 同時에 共産主義原則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理解하는 것이다.

이 利潤은 「드러커」에게 우선 企業의 存立에 必要한 것으로 強調되고 있다. 즉 『企業에게 利潤은 存續을 위한 必要物』이라는 것이다.(4) 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利潤의 獲得은 企業의 社會的責任으로서 다른 責任에 優先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企業은 適正한 利潤을 獲得하여 活動해야 한다. 이는 企業 自身에게 그리고 企業의 勞動者에 대한 企業의 第一의 責務인 同時에 企業第一의 社會的 責任인 것이다.』(5) 따라서 適正한 利潤을 獲得한다는 것은 企業 自身에게 뿐 아니라 企業의 第一次的인 社會的 責任을 이루는 것으로 된다.

다음으로 「드러커」가 意味하는 適正한 利潤은 必要最低利潤(required minimum profit 또는 minimum necessary profit)을 뜻하고 있다. 즉 『企業은 적어도 다음의 利潤을 生産할 것을 絶對的으로 必要로 한다. 즉 企業의 將來의 危險을 補償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利潤, 企業이 事業을 계속하고 企業資源의 副生産的 能力을 損傷않고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利潤이 그것이다.』(6) 이러한 適正利潤은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具體的인 內容으로 展開되고 있다. 첫째로는 企業自身의 危險을 補償함에 必要하고 充分한 利潤 둘째로는 社會的 費用(즉 租稅負擔)에 必要하고 充分한 利潤, 셋째로는 企業의 將來의 發展을 위한 資本의 生産에 必要하고 充分한 利潤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것은 첫째의 利

(2) P. F. Drucker, *The New Society, the Anatomy of the Industrial Order*, N.Y., 1949, p. 69.
(3) *Ibid.*, p. 72.
(4) P. F. Drucker, *The Practice of Management*, N.Y., 1954, p. 271.
(5) *Ibid.*, p. 271.
(6) *Ibid.*, p. 47.

潤, 즉 企業 自身의 危險補償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다시 ① 代置(replacement) ② 陳腐化(obsolescence) ③ 市場危險(market risk) 내지는 本來의 危險(risk proper) ④ 不確實性(uncertainty)등으로 區分된다.

다음으로 「드러커」에게 問題가 되는 것은 利潤의 機能으로서 이는 세가지로 區分되어 있다. 즉 첫째로 利潤은 企業努力의 有效性과 健全性을 測定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利潤은 企業成果의 窮極의 判定者라는 것이다. 둘째로 利潤은 事業繼續의 費用(代置, 陳腐化, 市場危險, 不確實性등)을 補償하는 危險保險料가 된다. 셋째로 利潤은 革新과 擴大를 위하여 將來에 必要해 질 資本의 供給을 保證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이 保證은 直接的으로는 留保利益에 의한 自己金融의 方法을 可能케 함으로써, 또 間接的으로는 企業目標에 가장 適合한 形態의 新規의 外部資本에 대한 充分한 誘因을 提供함으로써 實現되는 것이다.(7)

이러한 意見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커」에 있어서 利潤性은 『企業의 最高基準이며 또 理論的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는 또한 『企業이 그 自身에 대한 責任과 社會에 대한 責任과의 兩者를 表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產業的 企業은 利潤性에 基礎를 두고 그 諸方策에 대한 指針으로서 또 그 業績의 支配者로서 利潤性을 받아 들여야 한다.』(8) 이렇게 利潤性은 企業의 經濟的 業績을 測定하는 唯一의 尺度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지껏의 蘇聯經濟 및 企業을 產業經濟 및 產業的 企業이라고 假定한 다음에, 또는 從前이나 또는 「리베르만」論爭의 結論에서 上記의 「드러커」理論이 妥當한 것인지 또는 受諾되어 왔는지를 檢討해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선 注意해야 할 것은 蘇聯에서는 1929年 12月 5日의 共產黨中央委員會가 『生產物의 質이 同一한 경우 計劃原價와 實際原價의 差額은 企業活動의 成功의 程度를 表示하는 基本的 指標』라고 決定함으로써 이 差額이 利潤이며, 따라서 賣上利益은 實際出荷價格에서 去來稅 및 實際商業原價등을 控除한 額數로 되어온 事實이다.(9) 그러나 이는 國家計劃에 準하여 計劃된 企業 및 經營活動을 遂行함에서 發生할 수 있는 것이지 企業自體의 完全한 自主性을 前提로 한 것이 못됨을 想起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利潤은 經營者에게 附與된 狹小한 範圍의 自主性에 관한 것을 除外한다면, 결코 經營者의 諸決定에 있어서의 唯一한 準據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社會主義經濟의 本質的인 特徵은 資本主義의 利潤原則에 代身하여 計劃原理에 있음을 想起

(7) *Ibid.*, pp. 76—77.
(8) Drucker, *The New Society*, p. 73.
(9) 野田信夫, 『經營政策』 p. 11.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各經營者는 우선 社會的으로나 國家計劃上으로나 賦課된 生產量을 實現하는 것이 第一責務가 될 것이지 利潤의 實現 여부는 그 다음의 問題가 될 것이다. 따라서 產業的 企業이기 때문에 自身의 利潤의 原則을 集產主義的 計劃的 經濟에 게로 類推適用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우선 誤謬를 犯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이 利潤은 「드러커」에 의하면, 企業에게 存續을 위한 必要物로 理解되고 있으나, 蘇聯의 現體制 下에서, 計劃的으로 赤字 또는 損失이 豫想되는 生產企業體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企業體들이 社會主義的 所有下에 있으므로, 損失로 因한 企業存續의 危險이 있는 경우에는 國家가 이를 補償한다는 結論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狀은 資本主義下의 公企業 또는 公益企業에서도 非營利的인 目的下에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下에서 이 利潤은 반드시 企業存續을 위한 必要物로 適用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企業의 存續은 國家計劃이 스스로 判斷하여 決定할 問題로 될 것이다. 그 結果 이 利潤의 獲得은 社會的 責任으로서 企業에게 賦課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드러커」는 「適正利潤」의 內容에 있어서는 이를 集產主義的 經營에다 適用시킬 경우 誤謬를 犯하고 있다. 다만 그 세가지 具體的인 內容중 둘째의 社會的 費用 즉 租稅負擔에 관하여는 首肯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要素 즉 企業自體의 危險補償과 企業의 將來의 發展을 위한 資本의 生產등에 必要한 利潤에 관하여는 再考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우선 企業 自身의 危險補償에 必要한 利潤중에서 代置 및 陳腐化에 대한 危險補償은 이것 역시 國家의 經濟計劃의 判斷에 맡겨질 性質의 것이겠고, 經營責任者에게 委任된 權限은 극히 限定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利潤이 企業內에 留保되어 危險補償에 使用될 수도 있겠으나, 利潤이 實現되지 않았을 경우 國家가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危險補償을 放置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企業 自身의 危險중에서 市場危險 또는 本來의 危險과 不確實性의 危險에 관하여 「드러커」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即 市場危險은 生產物이 購買者를 發見할 수 있는가, 또는 新製品이 販賣에 成功할 것인가의 豫測에 관한 危險인데 대하여 不確實性은 生產物이 언제 販賣될 것인가 하는 時間의 要因에 關聯되는 것이다. 이러한 危險들은 無數한 獨立된 經濟單位들이 제 各己 何等의 統制없이 스스로의 豫測에만 依存하여 生產活動을 展開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만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資本主義經濟는 自由市場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企業家는 利潤實現可能性에 따라서 생길 價値法則의 支配를 받으면서 資源의 合理的인 利用을 圖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反面에, 生產手段의

私有가 廢止되고 公有化되어, 自由市場이 存在치 않는 社會에서는 事情이 相異해 지는 것이다. 즉 集產主義下에서는 私的 利潤追求 또는 企業의 利潤性에 대신하여 中央計劃機關의 計劃이 支配力을 갖게 되고 모든 生產活動은 이 計劃에 服從하게 되는 것이다. 即 社會主義社會에서는 計劃原理가 第一의 企業經營原理가 되는 것이다.(10) 따라서 모든 經濟活動은 計劃原理에 의하여 解決될 것이므로, 市場危險이라든가 不確實性이 生產物의 消費에 있어서 企業에게 危險이 될 餘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危險에 대한 補償은 企業單獨의 任務가 아닐 것이고, 販賣되지 않거나 不確實한 販賣의 損失도 결국은 國家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利潤의 세 機能에 관하여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드러커」는 利潤이 企業努力의 有效性과 健全性의 測定에 必要한 尺度로 보고 있으나, 計劃的 經濟下에서 오히려 計劃대로의 忠實한 生產活動이 그 尺度일 것이고, 그럼으로써 發生했을 利潤은 副次的인 問題로 될 것이다. 따라서 企業成果의 判定者는 生產實績이지 實現利潤의 量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危險料라는 利潤의 機能에 있어서 自己金融은 可能한 것이겠으나, 新規外部資本에 대한 誘因으로서는 集產主義下에서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國家가 모든 經濟를 計劃함으로써 國家가 新規投資를 決定하는 것이 當然할 것이지, 資本主義下의 株式會社의 資本調達의 方法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集產主義下에서도 國家가 財政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利潤率이 높은 企業體에게 投資를 集中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蘇聯의 企業들이 獨立採算制下에 있다고 하나, 經營者의 完全한 自主性이 附與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事實로 因하여 「드러커」의 利潤原則은 資本主義下에 있는 「產業的 企業」에게만 適用될 수 있는 性質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利潤性은 蘇聯에서의 企業의 最高基準이나 理論的 基礎가 될 수 없고 經濟的 業績을 測定하는 唯一한 尺度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兩體制의 相違는 한 쪽에서는 自主的 企業과 國內市場과의 關係下에서 企業活動이 이루어지는데 대하여 또 한 쪽에서는 國家計劃과 獨立採算制下에 있다고는 하나 그 實現者로서 臨하는 企業이란 關係에 있음으로써 생기는 現象일 것이며, 따라서 같은 產業的 企業이라도 體制의 相違를 超越할 수는 없는 것이며 企業의 目的도 이에 따라 相異해 진다고 結論할 수 있을 것이다.

---

(10) 大島國雄, 『社會主義企業經營論』, p. 24.

III. 「리베르만」論爭의 展開와 背景

上記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 下에서의 利潤追求는 勿論,「드러커」의 利潤原則까지도 社會主義經濟下에서는 適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리베르만」論爭을 經由하여 蘇聯經濟에 새삼스럽게 利潤槪念이 導入되고 있다는 事實은 극히 重大한 轉機로 보이는 것이 當然한 것이다.

이 論爭은 지금까지 두段階를 거쳐온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우선 序言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62年 9月 9日 發表된 「리베르만」敎授의 論及이 그 첫 段階를 장식하는 것으로 된다. 이 論文의 主內容은 企業의 效果的인 生產活動과 社會의 利益이 合致될 수 있도록 「고스플란」(國家計劃委員會)의 計劃方法 및 體系를 改正해야 하며 同時에 企業從業員들에게 物質的인 「인센티브」를 割與함으로써 企業의 對社會的 機能을 가장 有利하게 遂行하도록 經營을 實施케 하며, 이러한 事實 自體에 의하여 公益에 貢獻하게 된다는 것이다. 뒤이어 이 論文의 主旨는 各言論紙, 學術誌에 紹介되고 그 餘波로 各種 討論이 展開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論爭의 背景에는 蘇聯의 經濟全體가 現實的인 困難期에 處해 있었다는 事實이 있었음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即 30年間의 「스탈린」式 經濟計劃이 成就해 놓은 經濟的 科學的 技術的 發展에도 不拘하고 現段階의 經濟組織이 더 以上의 經濟發展을 沮害하며 따라서 不適合함이 明白해진 것이다. 全體的 生產量은 計劃에 忠實했다고 하지만 無數히 細分된 統制的 規定들에 파묻혀 下向式 生產命令에 얽매여 經營責任者들이 被動的으로만 움직이는 結果, innovation보다는 routine이, 質보다는 量이 壓勢하여 統計上으로는 보이지 않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겨울양말이 봄에 供給되기도 하고, 慣例的인 單一한 製品들만이 生產되고, 從來의 不合理한 價格構造로 消費者의 關心을 잃게 하는 일이 非一非再하여 消費되지 않는 商品在庫가 日益 增加했었다는 것이다.

再言하면 「스탈린」時節에는 量爲主의 經濟로도 充分히 經濟發展이 約束되었으나, 이미 지금의 經濟는 質, 生產性 및 技術的 發展의 保障 없이는 困難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要請에도 不拘하고 官僚的 緩慢이라든가, 「이니시아티브」와 組織의 缺乏, 製品의 低劣한 質, 原價高, 浪費등의 現象은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그 根本的 要因은 주로 經濟計劃의 方法, 組織 및 企業에 대한 統制的인 役割을 맡는 機構의 增加에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① 經濟計劃이 점점 企業經營과 混同되는 傾向이 있었다. 가령 「고스플란」은 各個別企

業에 대하여 生產量, 質, 勞動力, 賃金, 原料, 原料供給企業과 消費企業과의 契約關係등을 行政的으로 決定하여 實施케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例를 든다면 「에스토니아」共和國의 經濟委員會는 1957年 全體製品種類의 0.2%에 該當하는 17個 製品에 관해서만 獨自的으로 生產計劃을 세웠으며 殘餘 99.8%는 「고스플란」이 가령 「에스토니아」 共和國은 1年間에 어떤 種類와 規格의 製品을 얼마 만큼 生產하라는 指令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런 狀態下에서는 各共和國의 關係機關의 決定權이 全無하다시피 한 것이며, 生產을 直接的으로 擔當하는 經營者의 自律性을 論할 餘地는 더욱 없는 것이다. 그 위에다, 「고스플란」이 거의 全體의 經濟 및 各經營을 計劃化하므로 그 計劃이 아무리 合理的으로 樹立되었다고 假定하여도 그 內容에는 必然的으로 矛盾되거나 相衝的인 要素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時間과 場所에 따라 이 矛盾들이 發見될 것이며 그러면 計劃 自體의 隨時變更이 不可避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령 「하르코프」地域의 計劃은 1961年度에 37次에 達하는 計劃變更이 指令됐었다고 하는 것이다.

② 「고스플란」이 計劃을 全體的으로 樹立한 다음에는 이를 實現시키기 위하여 各個別企業들의 活動을 管理, 統制하는 機關이 必要해 진다. 이러한 機關들은 처음에는 最少限度로 그 數가 限定됐었다가, 차츰 企業成果들의 不振으로 因하여 그 數가 縱橫으로 增加一路에 있었다고 하며, 이는 一種의 惡循環을 계속 發生시킨 것이라고 한다.

即 처음에는 行政府 및 關係機關이 個別企業들에게 計劃과 監督을 強化할수록 經營責任者들의 自治權은 萎縮되기만 했었다. 그 結果 그들은 그들에게 命令하는 位置에 있는 管理·統制機關에게 生產, 技術, 價格, 作業組織등의 一切를 問議하고서야 그에 대한 決定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다음에 經營不振이 惹起된다면, 上部機關의 管理 및 監督의 活動이 不充分한 것으로 反影되어 類似한 機關들이 縱橫으로 增加하게 되는데, 그 結果 經營責任者들은 그들이 問議해야 할 關係部署의 복잡한 一覽表와 權限事項들을 參照하여 被動的인 決定을 하게 된다. 여기에 經營責任者의 責任이란 上位者들의 指令에만 服從하는 것에 그치므로 眞實한 意味의 經營責任을 完遂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責任의 所在가 明確하지 않게 된다. 또한 經營外部의 機關이 經營內部의 活動을 規制하고 그것도 數多한 機關들이 제각기 機能別로 介入하게 되므로 統一的인 經營이 어려워 지고 無秩序한 狀態가 惹起된다. 그러면 이 無秩序를 規制하려고 中央의 行政的 統制, 黨의 介入, 管理·監督機關의 增設등이 決定되어, 以上의 惡循環이 反復되는 것이다.

이를 歷史的으로 보면, 「스탈린」時節에는 「고스플란」에 隷屬된 수많은 技術者들이 直線的으로 各企業에게 直接 指令했었으나, 그 頑固性의 缺陷이 「흐루시쵸프」에 의하여 指摘된

다음 1957年엔 그 廢止를 보게 되고, 그 代身 地域別로·人民經濟審議會(Sovnarkhoze)를 新規로 設置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機關만으로는 各企業에 대한 管理·監督이 不充分하다고 하여, 결국 1960年에서 1964年 사이에는 共和國別「소브나르호제」, 各地域과 共和國을 連結하는 中間的「소브나르호제」, 各共和國別 產業別「소브나르호제」등이 順次的으로 增設되었으며, 드디어는 이들 全體機關을 다스리는 中央의 國家委員會들이 各機能 및 分野別로 過去의 技術者의 地位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며 黨의 介入도 더 積極化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各個別企業들은 이러한 無數한 上部監督機關들의 指令을 일일이 기다리고 照會하게 되고, 또한 國家計劃 및 그 當時의 諸事情으로 因한 計劃變更등을 甘受해야 했고, 責任의 所在는 不明確 해지고 全體的으로 봐서는 國民經濟에 不均衡 내지는 副作用을 惹起시켜온 것이다.

그 밖에도 客觀的 理由가 이러한 無秩序狀態를 惡化시켜 왔다. 一例로 經濟發展과 아울러 提高된 技術水準은 특히 「흐루시쵸프」 執權 以來, 企業에 加重되어온 官僚的 束縛下에서 그 效果的 利用이 困難해졌던 것이다. 즉 階層과 權限이 相異한 無數한 上部機關들은 企業이 實際로 必要로 하는 技術을 供給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各經營者는 計劃量의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技術供給을 公式的인 通路 대신에 市中에서 秘密去來의 方法에 의하여 解決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無數한 計數의 造作 欺瞞등이 橫行한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農業經濟部面에서도 公公然한 秘密로 되어왔었던 것이다. 如斯한 惡慣習을 抹消시키기 위하여 이 種類의 詐欺行爲에 死刑까지도 適用시켰다고 하나 이는 事後對策이지 결코 그 根本을 源泉的으로 治療하는 것은 못된 것이다.

以上의 弊端 또는 惡循環은 그후 「크레믈린」의 主人公들이 改編됐을 當時 辛辣한 批判의 對象이 되었었다. 그러나 이 批判에서도 주로 經營責任者들의 無自覺性, 無氣力性, 被動性등의 缺陷이 指摘되어 오고 官僚主義的 痲痺狀態는 별로 反省되지 않았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如何튼 官僚主義的인 經濟體制下에서는 모든 計劃·管理·統制의 機能들이 中央集權化되는 傾向이 있음을 否認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모든 問題點들이 「리베르만」論爭의 根柢에 있었음은 勿論이다. 그러면서도 1962年 發表된 「리베르만」의 理論은 公式的인 論評도 얻지 못하고 一種의 問題의 成熟期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리베르만」論爭의 둘째 段階는 學術院會員인 「트라페즈니코프」(V. Trapeznikov)가 1964年 8月 17日 發表한 「企業의 伸縮性있는 經營을 위하여」란 論文에서 시작되고 이어 公式·非公式의 討論會, 「리베르만」理論의 具體化, 各言論紙를 통한 紙上討論들이 끊임없

이 進行되었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이 一聯의 討論의 餘波로 1964年 以後로는 「리베르만」理論이 部分的으로나마 몇個 企業體에 實驗·適用되고 어느 程度의 成果를 본 後로는 그 對象企業體의 數를 擴大시키는 중인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그리고 新5個年計劃(1966—1970年)의 草案에서도 「리베르만」理論에 立脚한 國民의 消費生活에 重點을 두고 있다고 하므로 그 歸趨가 注目되는 것이다.

IV. 「리베르만」理論의 槪要

利潤論爭이 延長될수록 問題는 자꾸 複雜해지고 그 範圍가 擴大되어온 것은 必至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를 貧弱한 資料에 依持하면서 整理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本稿에서는 「리베르만」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槪說한 後 그에 대한 反論을 簡略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리베르만」은 우선, 社會主義的 企業의 使命이란 무엇인가 하는 大前提를 내세우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企業은 經濟發展 및 消費者의 需要充足에 必要한 모든 生產 및 流通을 均衡的으로 配合한 國家經濟計劃의 指令을 完遂함으로써 社會公益에 貢獻하는 것이 使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企業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最適의 條件下에서, 즉 最小의 費用, 原資材, 賃金 및 資金으로, 計劃量을 實現시킬 것인가? 그 方法으로 過去에는 下向式 經濟計劃의 萬能과 이에 隨伴하는 無數한 行政的 經濟規制의 拘束力을 制度化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베르만」은 正反對로 이 拘束에서 企業을 되도록 解放시키고 一定한 條件下에서라면 最大限의 利潤을 實現하도록 獎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企業은 自身의 利益을 追求하면서 計劃된 生產을 完遂함으로써 社會利益도 追求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蘇聯의 企業經營에 관한 약간의 說明이 必要해 진다. 즉 蘇聯에서도 이미 오래 前부터 모든 國家企業에게 賣上額에 의하여 모든 費用을 控除하고 利益이 많이 實現되었을 경우, 이를 良好한 企業으로 評價해온 것이다. 그러면 이는 利潤이 많이 實現될수록 그 企業은 良好한 企業이므로 企業成果의 評價基準은 利潤이었다는 것일까. 따라서 「리베르만」理論에는 全然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인가?

問題의 中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即 豫想과는 달리 利潤은 그 評價基準이 되는 指標로 認定되지 못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蘇聯에서 이 指標(index)라는 것은 國

家計劃에 의하여 定해진 目標이며 同時에 企業成果와 對比되는 基準이 되는 것으로 그 種類도 許多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指標들은 企業에게 實踐해야 할 生產活動을 直間接으로 規制하고 補償 또는 制裁의 基準이 될 수 있다. 여기서 企業은, 그 經營者가 극히 道德的이거나 公益의 代表者가 아니라면, 그에게 별로 큰 物質的인 利益을 招來하지 않는 部分의 指標를 위하여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지 않게 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그런데 從來의 體制下에서는 從業員 및 經營責任者에게 割與되는 奬勵金을 左右하는 指標는 주로 두 가지였다고 한다. 즉 첫째는 總生產指標로서 이는 「루블」貨로 換算된 實現되어야 할 總生產價額이며, 이에 따라 勞動者의 「프레미엄」이 決定되어 왔다. 둘째는 費用指標로서 이는 「루블」貨로 計算되고 %로 表示되는 原價基準이며 그 節約度에 따라서 經營幹部 및 技師의 「프레미엄」이 決定된 것이다. 여기서 前者는 絶對로 達成해야 할 目標라고 할 수 있고 後者는 費用減少에 의한 期待可能利潤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一見 合理的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實際로는 無數한 弊端의 原因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 중 一例를 들어 多種의 製品品目의 製品系列을 갖는 企業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企業도 可能한 限 最高의 數量 또는 價額의 製品을 生產해야 하고, 그 反面에 自由競爭이 全然 不必要한 與件下에서 製品系列의 合理的인 構成이라든가 擴大는 必要不可缺한 것이 아니므로, 製造가 가장 容易하고 有利한 製品系列에만 置重하게 될 것이다. 勿論 計劃經濟下에서 이 製品系列도 여러 指標중의 一要素로 되지만 總生產價額指標와 같이 絶對必須의 것이 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商品價値가 가장 큰 製品만이 生產되고 또한 費用指標를 낮추기 위하여 質을 犧牲시킬 것이다. 그 結果로 國家計劃과 規制들의 많은 副次的 制約要求는 흔히 無視되는 것이며, 그 企業의 製品을 消費하는 他企業 또는 其他 販賣機關, 最終的으로는 最終消費者들에게, 指令에서는 指摘되거나 注文되지 않았던 相異한 總額, 또는 質의 製品들이 供給되는 連鎖反應을 惹起하게 된다. 그러면 規制違反 내지는 違約으로서 所定의 罰課金이 과해 지지만, 이 方法이 最高指標를 危殆롭게 만드는 것 보다는 有利한 것으로 企業에게는 理解되는 것이다.

이러한 慣行의 簡單한 實例를 들 수 있다.(11) 어떤 A라는 접시製造工場에서는 보통접시 一個當 50「코펙」(copecks: 100分의1「루블」)으로 그리고 금붕어裝飾이 들어 있는 접시는 83「코펙」으로 販賣하도록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금붕어裝飾에 必要한 費用은 33

(11) "Le petit poisson d'or dans l'assiette", *Gazette Economique* du 16 déc. 1964, cité dans l'article "Le réforme des méthodes de gestion économique en Union Soviétique", revue *Problèmes Economiques*, du 5 oct. 1965.

「코펙」을 훨씬 下廻하므로 A 工場은 「루블」貨로 表示된 總生產價額의 指標를 有利하고 容易하게 達成하기 위하여, 이 금붕어접시의 生產을 爲主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操作의 慣行은 全體的으로 보면 社會生產力의 浪費이며 消費者의 犧牲을 強要하는 것으로서, 名目上의 生活水準의 向上을 實際와는 相異하게 만드는 것이다. 行政府는 이러한 害毒要素를 除去하려고 모든 手段을 講究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副作用만 招來해온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또한 指令된 企業活動에 忠實하려고 努力해도, 最終指標達成은 반드시 部分的인 規制 違反없이는 不可能한 實情이므로 經營責任者들은 이 違反을 故意로 犯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階層과 職權이 相異한 無數한 上部機關들의 管理監督活動과 經營責任者와의 사이에는 必然的으로 一種의 暗鬪가 盛行하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을 列擧하면서 「리베르만」은 狡猾한 經營責任者는 網絲의 틈바구니를 빠져나가고 誠實한 經營者들만이 모든 制約要素와 不利한 結果를 勘當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生產活動의 遲延, 不振 및 「이니시아티브」의 窒息을 招來한다고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敎訓을 찾을 수는 있다. 즉 모든 企業은 國家計劃과는 關係없이 그 自身에게 (즉 經營責任者에게) 가장 有利하고 便利한 方向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베르만」은 이러한 自然스러운 動向을 그 結果가 肯定的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따라서 計劃과 合當할 수 있도록 하는 手段, 制度등이 必要함을 力說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趣旨에서 提供된 것이 利潤/生產的資本의 對比로 나타나는 利潤率을 綜合的 또는 槪括的 指標로 昇格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베르만」의 提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包括的으로 여러 側面을 檢討한 것으로서, 이를 槪要하면 다음과 같다.

(1) 各個別企業의 合理的 企業活動을 癱瘓시키는 모든 下向式 基準, 指令, 指標들을 最大限으로 除去하고 이를 單純히 生產量, 製品系列, 그 分配의 領域에 관해서만 規制하는 計劃으로 代替시켜야 한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라야 經營責任者들은 그들에게 合理的으로 생각되는 모든 生產活動을 組織하게 될 것이다. 즉 達成해야 할 量的目標만을 爲主로 하고 이에 矛盾된 許多한 規制들이 隨伴되는 下向式經濟計劃만으로는 企業의 生產力을 숨기게 하고 最大의 生產性이 保障되지 않으므로, 이를 各個別企業이 獨自的으로 經營計劃을 樹立하는 權限을 賦與함으로써 解決하자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소브나르호제」도 各工場에 대한 原資材 및 技術의 供給方法을 根本的으로 刷新·改正해야 한다고 한다.

(2) 「고스플란」은 現制度와 같이 每年의 嚴格한 計劃을 固定시키는 대신에, 中期 또는 長期의 展望만을 세우고 2,3年에 한번씩 「소브나르호제」의 中繼에 의하여 計數들을 把握

하는 것을 本任務로 해야 한다. 그리고 短期計劃은 企業內部의 經營委員會에서 勞使共同으로 決定하고 「소브나르호제」는 그 補助, 또는 計劃執行過程上의 修正등에 관하여 機能하면 充分하다는 것이다.

(3) 經營의 自主的인 計劃化를 助長하기 위하여 各企業은 原資材供給企業과 自己製品의 直接消費企業 및 最終의 消費段階까지와도 直接的인 緊密한 接近을 圖謀해야 한다.

(4) 企業活動의 評價基準으로서 利潤率을 使用하되, 이 利潤의 一部分은 企業에 留保되어 從業員의 「프레미엄」으로 割與될 수 있어야 한다.

(5) 以上의 것 以外에도 經營責任者는 生產委員會의 諮問下에 다음과 같은 廣汎한 權限을 委任받아야 한다고 한다. 즉

ⓐ 工場(企業)의 構造 및 人事를 獨自的으로 決定하되 이는 勿論 所定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 標準賃金보다도 高率의 賃金을 支拂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企業內의 不充分한 管理部面의 機能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決定할 수 있어야 한다.

ⓓ 從業員의 福利厚生의 諸施設을 위하여 充分한 資金을 供給받도록 保障해야 한다.

「리베르만」은 以上과 같이 함으로써 經營責任者가 盲目的인 計劃實行者의 處地를 脫皮하여 眞實한 뜻으로 본 經營者의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社會를 위하여 有益한 것은 企業에게도 有益하다는 結論을 잊지 않고 있다.

「리베르만」의 以上의 提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推理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의 利潤槪念은 企業活動의 原動力으로 理解되고 있지 않다. 즉 企業의 主要任務는 中央의 計劃에서 指摘된 테두리의 生產量을 達成함에 있는 것이며, 利潤率은 經營成果의 尺度로서 絶對的인 任務라기보다는 勸奬되는 것이며 經營成果의 評價基準인 것이다. 그리고 이 任務는 總生產指標라는 絶對的 形態下에서 表現되지 않고, 明示된 製品의 質, 類型, 및 量들을 企業과 顧客과의 契約에서 所定의 期間內에 實現시킬 自律的인 生產活動으로서 表現되고 있다. 따라서 이 任務는 對顧客關係에서 더 追求되며, 計劃量의 盲目的인 超過에 있는 것이 아니다. 如何튼 經營의 目的은 이 任務에 있고 利潤에 있지 않으며, 모든 企業活動도 이 利潤만을 위해서 展開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利潤은 生產的資本의 效率的使用, 生產方式의 「이노베이션」, 原價切下등에서 招來될 것이므로 이러한 經濟性의 尺度가 될것이며, 經濟性이 主產物이면 利潤은 副產物이 될 것이다.

더우기 「리베르만」의 理論은 國家經濟計劃의 方法을 完璧化하려는 方案이지 利潤極大化

를 意圖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各個別企業은 國家企業으로서 國家가 許容하는 範圍와 條件下에서만 利潤의 實現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령 經營合理化가 잘 되어 있는 어떤 一企業에게 國家가 全然 不利한 製品生產을 命했다고 하면, 여기서 利潤은 별로 期待될 수 없을 것이다. 反面 이 企業은 資本主義下에서라면, 가장 合當한 製品計劃을 세우고 利潤을 極大化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위에다 「리베르만」의 意見을 實地適用시키더라도, 發生된 利潤은 企業側이 恣意로 處分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勿論 國家가 企業의 所有者이므로 그 중 큰 部分이 國家豫算에 編入된다 함은 當然할 것이겠으나, 「리베르만」은 이 利潤의 15 내지 25%程度만을 企業에 留保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留保된 基金 중 40%는 從業員에 대한 奬勵金 支給, 40%는 福利厚生施設, 나머지 20%는 裝備現代化등에 充當토록 하려는 것이 그의 意見이다.

그러므로 「리베르만」의 利潤은 資本主義的 槪念으로서의 利潤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의 提案의 主眼點은, 그 自身이 表明했듯이 構造의 變更보다도 方法의 改善으로서 企業과 經濟의 關係를 改善함에 있으며, 經營者 本來의 領域을 行政府로부터 다시 經營者에게로 되도록이면 復歸시킨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意圖의 根柢에서 다음과 같은 論理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計劃의 遂行이든가 原價引下등은 그 主體인 企業에게 一定한 自主性이 賦與되어 있지 않는 限, 責任의 回避가 되며, 結局 그 目的도 達成될 수 없는 것이다. 또 財務面에서도 企業은 自己의 支出을 自己의 收入으로 「커버」해야 하며, 企業活動의 結果 獲得된 企業利潤의 處分에 關하여 一定範圍內에서의 自主性이 必要하며, 國家計劃外의 企業自體의 資本建設도 企業自體의 利潤蓄積에서 解決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企業에 대한 自主性의 賦與는 獨立採算制(Khozraschot)의 重要한 要素가 된다.

다만 이에 관하여 注意해야 할 것은 이 自主性은 計劃의 限界內에서 可能한 것이며, 社會主義經濟의 計劃原理에 따라서 計劃性에 從屬된다는 點일 것이다. 그러므로 「리베르만」의 利潤槪念도 결코 여기서 離脫하는 性格의 것이 못되는 것이다.

V. 「리베르마니즘」에 대한 反論

「리베르만」理論에 대한 論駁은 「리베르만」 自身이 少數派에 속할 만큼 多數에 達하며 強烈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이러한 反論들은 勿論 多樣하여 그 內容들을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것이나, 대체로 이를 兩極으로 分割할 수 있겠다. 即 한 쪽에서는 愼重論이 展開되어 「리베르만」理論을 너무 過度한 것으로 觀測하며, 또 한 極에서는 그의 理論을 不充分

한 것으로 批判하는 것이다. 그러나 兩側이 現行計劃體制 및 方法에 대한 修正論을 主張하고, 그러면서도 그 再編成에 있어서는 過去「흐루시쵸프」가「스탈린」時節의 體制를 輕率하게 變更시킴으로써 犯한 失政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愼重한 考慮를 베풀고 있는 點은 共通된 點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保守的인 論者들까지도 現狀維持를 主張하지 않으나, 그들은 計劃의 諸指標들을 大幅 修正하면서까지 現體制를 重大하게 變更시킬 必要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리베르만」의 利潤率 槪念을 無意味한 것으로 批判하고 있다.

즉 生產的 活動의 能率의 尺度가 되는「리베르만」의 利潤率은 其實은 企業 單獨의 努力에 의해서만 決定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企業이 自身이 販賣하는 製品의 價格에 관하여는 何等의 決定權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企業이 그의 製品을 지나치게 低廉한 價格으로 販賣해야 할 경우, 그 賣上額은 費用조차도「커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假定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蘇聯에는 計劃的으로 赤字를 豫想하는 企業(특히 鑛業分野)들이 無數히 存在함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利潤이 全無한 것이 극히 當然한데, 그렇다고 그 企業의 能率이 전혀 低調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極端의 例를 除外하더라도, 이 利潤率은 實際로 產業의 各分野마다, 또 同一分野의 產業內企業에서도 地理的, 技術的 및 其他의 諸經濟條件이 相異하므로 극히 多樣해질 것이다. 그 結果 企業成果는 相異하더라도 各企業의 與件에 따라 同一한 程度의 利潤率을 볼 수 있게 되므로 어떤 企業에서는 相應한 努力 없이도 莫大한 償與給에 參加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假定에 관하여는「리베르만」自身도 首肯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는 結局에는 그의 理論이 모든 企業이나 產業分野에 適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認定함으로써, 그의 理論의 普遍妥當性을 否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理論을 適用시킨다면, 거기에는 必然的으로 無數한 規制들이 附隨하게 될 것이다. 즉 同一 利潤率은 반드시 同一한 企業努力을 示顯치 않으므로, 企業努力에 속하는 要素를 選定하고, 속하지 않는 要素들을 除去하는 作業이 必要하게 되고, 이는 想像만 하여도 극히 多難한 業務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리베르만」은 自身이 指摘해온 過去의 無數한 諸指標와 規制들에 의한 經濟行政의 弊害 또는 矛盾을 自己理論에서 다시 發見한다는 結果가 된다. 即 複雜한 諸規準을 없애고 단순히 利潤率이란 尺度만 가지고 企業成果 내지는 努力을 評價하자는 그의 意見은 이 尺度의 機能을 위하여 새로운 規制들을 다시 必要로 함으로써 스스로 矛盾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論駁에 뒤이어, 保守的 論者들은,「리베르만」理論이 社會主義經濟의 第一

原則인 計劃原理에 違背되는 內容을 가짐으로써 反社會主義的 理論으로 看做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 自身의 意見으로는 計劃原理를 어디까지나 第一原則으로 하여 現行體制를 維持하되, 다만 그 實施 및 適用에 있어서는 伸縮性 또는 適應性을 賦與해야한다고 한다. 즉 그들도 計劃과 企業間의 關係에 內在하는 矛盾과 現行의 諸指標가 過度하게 數多하고 複雜함을 是認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同時에 이 指標들의 全部가 모든 企業에게 一律的으로 同一하게 重要한 것이 아니며, 가령 A라는 指標는 X企業엔 最重要해도 Y企業엔 副次的인 것일 수도 있다는 事實에 着眼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行政當局 및 諸機關의 調整者的 立場에서, 또는 過去의 硬直하고 融通性없는 統制의 態度를 떠나서, 計劃의 實現과 企業의 權限들을 保障할 수 있도록 case by case로 適切한 解決策을 發見하고 實施하면 그것으로 充分히 現體制의 矛盾이 除去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上記 保守的 論者중에서 「리베르만」의 利潤率 대신에 「加工標準原價」(coût normatif de transformation)를 提案한 「타타리아」共和國의 黨第一書記인 「타베예프」를 特記할 수 있다. 그의 提案은 「고스플란」의 承認下에 數年前부터 石油產業分野等에 適用되어 왔다고 한다. 이 加工標準原價라는 것은 「테일러」(F. W. Taylor)의 標準槪念 또는 「에머슨」(H. Emerson)의 標準原價의 槪念과 類似한 것으로 生產活動의 實施前에 豫定標準原價를 算定하여 企業努力 및 成果를 比較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는 coût normatif/coût actuel(標準原價／實際原價)의 對比로 表示되며, 이를 「리베르만」의 利潤率에 代替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實施에는 許多한 難點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即 이 方法의 操作 또는 取扱은 극히 複雜하고 各段階마다 專門的 算出이 必要해지는 反面, 生產原價의 一部分만이 그 原價要素를 形成하고 있다는 點에서 短點들이 指摘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提案은 一般化될 性質의 것이 못되는 것으로서 冷待받게 된 것이다.

以上의 保守的 論者와는 對照的으로 進步的 思想을 가진 論者들은 「리베르만」理論이 지나치게 小心함을 탓하고 있다. 이 進步的 論者들에 의하면 「리베르만」의 利潤率은 唯一한 尺度로서의 榮光을 누릴 만큼 重要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保守的 論者들이 批判하듯이 全然 無價値한 것도 아니다. 即 이 利潤率은 企業成果를 評價함에 있어서 可能한 여러가지 尺度중의 하나일 따름이지 그 以上도 그 以下도 아니라는 것이다. 더우기 計劃實現을 위하여 利潤率을 使用하자는 意見은 이미 오래 前에(1949年) 「아틀라스」(Atlas)敎授의 公式이란 命名下에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리베르만」은 하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案한 것이 아니며, 더우기 價格形成의 問題, 實現利益의 좀 더 큰 部分을 企業自身에게 處分할 수 있도록 하는 租稅制度 등에 관하여는 하등 論及치 않음으로써 進步된 理論도 아니라

는 것이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리베르만」方式의 適用은 좀 더 良好한 計劃達成을 保障해주는 것이 결코 못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即 各企業들은 이 利潤率의 適用때문에 더 容易한 다른 解決策 또는 脫出口를 探索하지 않게 될 것도 아니며, 특히 지금도 慣行的으로 行해지고 있듯이, 下達될 計劃의 內容 自體를 自己企業에게 좀 더 容易한 것으로 만들려고 展開하는 策動行爲를 멈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위에다 이 論駁은 過去의 無數한 諸指標와 利潤率指標를 共通的으로 不充分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換言하면 이미 現體制에 의하여 操作·下達되는 諸指標들은 單純히 企業活動의 結果와 比較하기 위한 것으로 되지 그 以上의 機能은 不可能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例로 總生產價額의 指標를 들 수 있는데, 이는 一定期間內에 一企業이 生產한 總價額과 對比되는데 不過하며, 그 生產의 實內容을 仔細히 說明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利潤率이란 指標로 利潤의 生產的 資本에 대한 關係는 보여주지만 그 以外의 아무 役割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리베르만」理論을 實效가 없는 것으로 斷定하는 이 進步的 論者들의 提案은 무엇인가, 이 進步的 論者 중에서 驍將이라고 할 수 있는 學術院 會員인 「넴치노프」(Nemchinov)가 1964年 3月에 發表한 改革的인 計劃案을 一瞥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는 計劃構造 및 企業과 計劃과의 關係를 좀 더 民主化해야 한다는 前提를 내세우고 있다. 그 理由로서 그는 企業들이 그들의 可能한 모든 欺瞞手段을 使用하면서 計劃의 指令을 免하거나 違反하려고 努力하는 慣行은 반드시 過度한 規制들에 파묻혀 있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非民主的인 關係에 의하여 從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處方은 이 規制들에 의하여 重壓되고 있는 企業의 責務를 輕減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企業과 計劃間에 存在하는 從屬關係를 解消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그 結果 이 學術院 會員은 다음과 같은 衝擊的인 代案을 내세우고 있다. 즉 企業에게 下向式責任으로 形成된 計劃 대신에, 計劃當局은 企業에게 注文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生產物의 量도 企業의 絶對的인 責務로 感知되지 않고 中央의 計劃當局과 企業間에서 民主的으로 交涉된 契約的 責務로 認識하게 될 것이다. 그 結果 責任은 兩當事者間에 다 같이 發生하는 것이다. 즉 企業側에서는 計劃의 注文을 不良하게 實現했을 경우, 計劃當局은 그의 注文을 專橫的으로 修正 變更하는 경우에 責任이 發生하게 된다.

둘째로 그는 價格에 관하여 論及하는데 이 價格은 企業에게 採算에 맞도록 調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企業으로 하여금 質과「이노베이션」을 奬勵하기 위해서는 生産의 質, 種類, 새로운「아이디어」의 製品등은 그 價格決定에 加算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는 지나치게 複雜하고 長期間을 요하는 必要裝備, 設備 및 資材의 購入節次의 弊害를 指摘하고 있다. 즉 現行制度에 의하면 官僚的 行政과 形式主義의 틈바구니에서, 各企業은 이미 計劃年度가 시작되기 8個月前에 生産財供給當局에게 割當券을 申請해야 하며, 調達時까지의 諸事項의 變更으로 購入品目의 變更이 必要해질 때도 供給命令의 內容變更은 至難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官僚的 緩慢을 是正하려면 割當券없이 計劃과 企業의 注文契約의 內容에 따라 伸縮性있게 原資材, 部分品, 機械등의 購入이 可能해져야 할 것이다.

蘇聯에서 財貨, 특히 生産財의 割當配給이 繼續되어 온 데는 需要充足에 必要한 供給의 不足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供給이 充分해진 財貨에 관하여는 配給制는 이미 無用之物로 되는 것이다.「넴치노프」는 따라서 아직도 現實的으로 缺乏되어 있는 財貨에 限해서만 配給制를 實施할 것을 提案하는 것이다. 이 問題는「리베르만」自身도「소브나르호제」의 供給活動에 關聯시켜서 間接的으로 言及하고 있으나 具體的으로 提案한 것은 이「넴치노프」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提案은 아직도 舊慣習에 젖어 있는 經濟實務家들(即 計劃當局者, 企業幹部들)에 의하여 危險한 생각으로 믿어지고 있는 듯하다.

넷째로「넴치노프」는 經營幹部들의 精神狀態에 관하여 그 時急한 是正을 強調하고 있다. 즉 現經營幹部들은 生産的 資本을 좀 더 經濟原則에 合當하도록 運營하려는 氣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를「리베르만」은 利潤/生産的資本의 關係에 의하여 達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넴치노프」는 企業資本의 利子槪念 또는 資本의 報償을 導入함으로써 解決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利子支拂의 危脅이 浪費를 抑制케 하는 役割을 할 것이므로, 資本使用에 하등 支拂할 것이 없음으로써 資本은 費用(原價)要素가 아니라는 蘇聯의 經營者들의 幻覺에 終止符를 찍어야 한다고 한다.

끝으로 그는 利潤은 當然히 企業에게 奬勵되어야 하는 것이나, 上記한 그의 提案內容과 같은 全般的 改善이 經濟 및 企業의 運營에 있어서 保障되지 않는 限 無意味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리베르만」理論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된 反論들은「리베르만」提案의 眞價를 그 原位置에서 어느 程度 把握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論爭의 大部分은 構造의 變更보다는 制度 또는 體制의 改善點을 摸索하는 것으로서, 結局 中心論點은

現體制의 技術的 向上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爲政者들이 「리베르만」의 理論을 實地에 適用 實驗할 것을 容易하게 決定할 수 있었을 것이다. 反面에 「넴치노프」와 같은 急進的인 「아이디어」들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討論의 段階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그 實地適用의 機會는 가까운 將來까지는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VI. 「리베르마니즘」의 實驗과 蘇聯經濟變化의 內容

上記한 바와 같이 經濟의 計劃化, 그 指令, 企業의 計劃量達成 및 이를 위한 效果的인 企業經營등의 諸問題들은 數年以來 蘇聯經濟의 深刻한 問題性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르는 諸理論의 實驗 適用, 諸政策의 決定등을 볼 수가 있다. 즉 蘇聯에서는 近年에 와서 理論的으로 提案된 諸試案들을 實驗 確認하는 節次가 流行되기까지 하는 印象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의 實內容의 過去·現在·未來를 좀 더 자세히 理解하려면 여지껏 進行되어온 諸實驗과 政策들을 一瞥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近來까지 進行되어온 實驗의 內容이든가 그 對象企業體등은 多樣하여, 例를 들면, 作業組織, 投資의 方式, 合計技術, 經營計劃의 樹立등에 관한 改善點들을 爲始하여 計劃과 企業과의 關係에 관한 것도 平行的으로 實施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對象 企業體의 數는 日益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 本稿에서는 「리베르만」이 처음으로 着想한 生產者와 消費者의 直接的인 契約關係에 관한 實驗을 爲主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이 實驗의 最初의 對象企業은 「볼셰비츠카」와 「마야크」의 두 工場으로서, 兩企業이 모두 旣成服製造工場이었다. 從前의 原則대로 한다면, 이 種類의 企業들은 그들을 管掌하는 關係當局에게 計劃年度가 시작하기 6—8個月前에 이미 그들의 生產, 必要原資材의 購入, 納品對象의 商業機關(企業)등에 관한 一切의 企業活動計劃의 草案을 提出해야 했었다. 그리고 이 草案은 行政的인 모든 節次 및 修正過程을 經由한 後 各企業에게 指令되는 것인데, 그 節次의 遲延으로 流行性이 있는 製品들은 흔히 豫測치 못할 被害를 입어 왔다는 것이다. 即 計劃의 承認이 遲延될수록 겨울外套가 4月에, 여름구두가 11月에 商店에 陳列되기가 通例였다고 한다. 따라서 1964年 7月에 시작한 上記 兩企業에 대한 實驗은 이 方法을 轉倒시킨 것이다. 즉 이 「파일로트」企業들은 關聯商店 또는 商業機關과 直接的인 納品契約을 締結하되, 商店들은 小賣商에서의 受注時 最終顧客들의 希望을 이에 反映시키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兩契約當事者들은 이 契約에서 製品의 種類, 量은 勿論 質, 價格, 納品期日등에 관하여도 獨自的으로 妥協하여 그 結果를 中央計劃當局에게 提出하여

事後承認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製造方法, 原絲調達 및 其他의 勞務, 人事의 管理를 自主的으로 實施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兩裁斷企業들의 經營成果는 受注品의 適期納品과 利潤率에 따라서 評價되었다.

以上의 實驗에서 가장 特記할 것은 兩實驗企業들이 納品商店들과 事前에 契約하고 計劃當局은 事後에 介入한다는 事實이다. 勿論 計劃當局 및 그 指導機關들은 間接的으로 이를 監督 統制할 것이겠으나, 形式上으로는 적어도 需要와 供給이라는 一種의 市場生產을 可能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로 因하여, 西方側의 觀測者들은 蘇聯에 自由市場, 消費者爲主의 生產, 經濟計劃의 포기 등으로 解釋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 實驗의 첫 6個月間 (即 1964年 7—12月까지)의 結果를 보면, 모든 計劃이 完全히 實現되었고 7%의 利潤率 增加, 顯著한 質的向上, 販賣高增加, 在庫品品切(특히 他織物界의 販賣되지않은 在庫는 1964年末에 2億 7千萬「루블」에 該當하였다고 함), 價格의 10分의 1引下, 賃金引上(104「루블」에서 122「루블」로)등의 結果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는 반드시 順調로운 條件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첫째로 「고스플란」의 指令이 下級管理機構 (「소브나르호제」) 등에게 철저히 傳達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었던 결과, 모든 購入活動이 順調롭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原資材供給企業들은 如前히 從前의 原則대로 臨함으로써 兩實驗企業과의 直接的인 契約關係가 不可能했던 것이다. 둘째로 顧客들은 새로운 質과 種類(그 例로 Lavsan을 들 수 있다)의 合成纖維등의 製品을 要求함으로써 技術改革 및 그 適用을 위한 準備活動, 原絲購入등의 諸努力이 必要했었다. 또 「소브나르호제」들은 이 「파일로트」企業들의 利潤率만을 높이기 위하여 收益性이 작은 兒童服의 生產은 게을리하였다고 非難하고 「볼셰비츠카」와 「마야크」에게 有益한 것은 반드시 社會全體에게 有益한 것이 아니라』고 斷定함으로써 「리베르만」의 생각을 一部 否定한 것이다.

結局 上記의 難關들은 餘他의 모든 企業 및 產業分野에 同一內容의 改善點이 同時的·全面的으로 實施되지 않는限 所期의 實效를 期待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하며, 이 點에서 「리베르만」理論의 盲點이 指摘될 수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의 理論이 모든 產業分野에 다 같이 適用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特定產業에게만 適用시켜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系列的으로 相互關聯되는 產業分野間에 發生할 非調和가 어떻게 解消될 것인지가 疑問이 된다. 그러므로 國家經濟全體를 二重構造로 만드는 結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兩「파일로트」企業의 成果는 結局 成功된 것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其實은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은 要因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두 企業은 實驗以前서부터 代

表的인 企業들로서 오래 前부터 그 製品의 評判은 좋았다고 한다. 둘째로 이 兩工場은 전적으로 女子從業員들만이 作業을 함으로써, 實驗對象이 되었다는 自負心의 作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美國의 「호돈」實驗에서도 이러한 現象은 있었다). 셋째로 流行性 없는 衣類만이 生產되어 오다가 새로운 「데자인」의 衣類가 發賣됨으로써 販賣成績이 必然的으로 上昇되었다는 事實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以上의 實驗以外에도 1964年初以來, 奬勵給(premium)의 新制度가 各產業分野에서 選定된 80個 企業에게 適用되었고 뒤이어 「이노베이션」의 奬勵制도 新設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總生產指標는 勿論 製品의 質, 勞動生產性, 費用指標, 利潤率, 新製品의 創案등에 따라 高低의 奬勵給에의 參與가 決定되고 있다.

또 한편, 蘇聯에서 人口와 面積面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에 있는 「러시아」共和國에서는 商業施設의 近代化, 商店의 增設, 販賣員의 數的 增加 및 技術의 向上, 廣報活動, 需要分析등에 大大的으로 投資하기로 決定하였다하므로, 이를 一種의 「마케팅」活動의 導入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反面에 聯邦政府나 黨에서도 여러 政策을 새로 構想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上記의 直接契約關係의 實驗이 成功을 거두자 이에 勇氣를 얻은 經濟當局者들은 1965年에는 全國에서 纖維, 衣類, 製靴등 輕工業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400個의 大規模工場들에게 同實驗을 擴大키로 決定하고 進行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만 重工業分野는 그 結果가 輕工業보다도 훨씬 重大할 것이므로 아직도 傳統的인 原則만이 繼續되어 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 以外에도 1966年 3月 29日 開幕된 蘇聯共產黨 第23次黨大會에서는 經濟管理機構의 改編과 「리베르마니즘」에 立脚한 消費生活水準의 向上을 決定한 바 있으며, 비록 그 자세한 內容은 傳해지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說明된 內容들의 實驗들이 擴張되어 갈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다. 이 黨大會 決定의 草案은 1965年 10月의 黨中央委員會總會에 作成된 것이라고 하며, 이 草案에서는 企業經營에 있어서, 行政的方法이 經濟的方法을 害치면서 君臨하고, 또한 이 行政은 地域單位로 組織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缺陷이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即 產業別專門化의 沮害, 地域別로 散在해 있는 企業들間의 生產關聯의 減少 및 科學的 知識의 一般的 適用의 遲延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共和國 및 聯邦國家單位의 技術省의 一元的 監督下에 分野別 產業行政이 必要하며, 計劃 및 經濟의 諸機關들은 變遷過程에 있는 經濟의 諸事情, 生產과 需要의 調節, 科學·技術的 發展의 導入 適用, 및 各企業이 處해 있는 具體的인 事情등을 參酌하여 生產能率을 保障할 수 있도록 더 한층의 伸縮性을 發揮해야 한다고 指摘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蘇聯經濟와 企業經營의 變化 또는 變遷過程은 「리베르만」의 理論의 領域을 多分히 超過하는 것이며, 그 結果 「리베르만」의 提案은 이러한 改革旋風의 一要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II. 蘇聯經濟變革의 評價 및 그 問題點

生產者와 顧客과의 直接的인 契約關係의 制度化 및 奬勵給制度의 改正등은 여지껏 官僚的 中央集權的 計劃의 體制下에 있던 蘇聯經濟에 不可避하게 相當한 動搖를 招來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크레믈린」의 新指導層에서는 이 改革을 同一方向으로 繼續 推進·擴張시킬 것을 確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改革은 끝없이 進行될 것인가, 아니면 그 限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勿論 新設된 諸制度는 아직도 普遍化되고 있지 않지만, 그 範圍와 適用의 對象이 점점 擴大되어 점점 많은 企業들이 相對的으로 더 큰 自律性을 享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自主的인 企業들에서는 從業員의 賃金決定, 都散賣 商業機關과의 價格交涉, 原資材등의 直接的인 調達, 福利厚生施設의 增設등의 여러 部面에서 獨自的인 決定權을 擴張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各企業은 計劃規準에 明示되어있는 原資材까지도 그 購入을 拒否할 權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伸縮性있게 豫算을 編成하도록 必要한 發言權을 保有하게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上記한 모든 새로운 措置들은 社會主義國家의 生產手段의 國有라는 根本的인 原則은 勿論, 中央集權的 計劃의 原則 또는 原理를 否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實驗도 其實은 「리베르만」, 「트라페즈니코프」 또는 「넴치노프」등의 提案全域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論者 및 經濟高位層의 所見으로는 下向式國家計劃 및 計劃指導의 諸機關의 機能을 伸縮性있게 補充하여, 合理的인 販賣價格, 製品系列의 幅, 原價節減등에 관하여 活動해야 함을 強調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兩極의 反論들을 相殺하거나, 또는 어느 程度 構造改革의 편으로 偏向하더라도, 國家計劃과 그 指導機關들의 作用이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各企業에 影響을 끼치고 各企業은 그 結果, 利潤率의 重要決定要素들에 관하여 直間接으로 統制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리베르만」以後에도 그 前과 같이 企業은 完全한 獨立的 方法으로 그 自身의 收益率을 計劃化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企業의 完全한 自主性을 否認하는 것이며, 또 深刻한 構造變革이 없는 이상, 可能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 結果 國家計劃과 그 指導 및 統制活動이 存續하는 이상,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라도 繼續중인 改革의 內容도 그 限界가

豫定되어 있는 것으로 斷言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의 改革 自體라든가, 그 根本的原因과 目的을 想起해 보면 이는 더욱 明白해지는 것이다. 行政的 決定에 依據하는 過去의 經濟 및 經營의 諸制度가 蘇聯經濟의 深刻한 問題點들을 解決치 못할 뿐 아니라 惡化시켜 왔다는 것은 理論家 뿐 아니라, 大衆의 公論으로 되어왔던 것이다. 그 때문에 「리베르만」을 中心으로 한 左右의 提案들이 續出하게 되었으며, 그러면서도 聯邦政府는 決斷的인 改革보다는 部分的 漸次的인 改善을 圖謀해 온 것이다. 勿論 蘇聯經濟의 大規模性때문에 어떤 改革이든, 深思熟考한 後, 實施되는 것이 當然할 것이므로 保守的인 反論들의 影響이 至大한 것임을 推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하튼 推進중의 諸實驗 및 制度適用의 結果라든가 그 評價에 관하여는 아직도 傳해지고 있지 않으므로, 以下에서는 오히려 蘇聯經濟 全般의 動向 또는 趨勢를 檢討하기로 한다. 이미 數次 言及된 바와 같이 經濟의 能率(efficiency)이 數年來로 低下되고 있음이 意識되어온 事實은, 그 前까지의 經濟發展이 本質的으로 外延的 發展에 힘입었음을 推測하게 하는 것이다. 즉 生產基礎의 量的擴張(새로운 生產單位의 建設 및 舊施設의 擴張)등에 의한 生產能力의 增加, 豊富한 勞動力의 產業的 生產으로의 轉移등의 外延的 方法으로 生產諸力의 急激한 發展을 記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外延的 發展의 資源이 枯渴될수록 漸次的으로 內向的 強度의 增強을 必要로 하게 되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 換言하면 生產力增加가 一定限度에 到達하자, 뒤이어 生產性向上의 問題가 擴大 提起된 것이다. 여기에 過度하게 硬直한 中央의 計劃化 및 行政의 諸活動이 經濟의 諸原則을 代身함으로써 經濟의 能率을 保障하지 못할 뿐 아니라 障碍要因으로 指摘된 것은 극히 當然한 것이다. 이렇게 時急해진 生產性, 能率, 經濟性등의 問題는 이를 專門的 領域으로 自處할 수 있는 企業에게로 歸屬시킴이 妥當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企業에게 相當한 自主性이 賦與되어야 함이 論理일 것이다. 여기에서 計劃과의 關聯下에서 派生될 社會主義的 企業의 制度的 變遷을 發見하게 될 것이며, 經營自主體的 理論의 素地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企業과 經濟의 非能率은 深刻한 問題로서 蘇聯의 經濟計劃當局은 隨時로 一定한 上昇率을 維持하는 投資量에 比하여 그 效率의 減少傾向을 指摘해 왔다고 한다. 이는 또한 生產基礎 또는 生產諸力의 擴張에 比하여 國民所得의 增加速度가 느린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렇게 「리베르마니즘」을 中心으로 하는 모든 問題는 其實 生產性이란 槪念을 中心으로 하여 展開되어온 것이라고 斷言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蘇聯經濟가 內包하고 있었던 問題들은 또 한편으로는 構造的인 缺陷으로 解釋할 수도 있겠다. 즉 國民經濟의 自然的·經濟的 諸條件들이 充分히 反影되지 못하는 巨視的 經濟構

造(macrostructure)가 恒久的인 擴大再生產을 約束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蘇聯經濟는 1960年을 前後하여 生產構造에서 重大한 不均衡을 內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各種 生產分野의 比率問題를 內包하는 macrostructure는 各特定產業分野內의 各種의 範疇間의 問題 即 microstructure의 것을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生產構造(供給의 構造)와 消費構造(需要의 構造)間에 介在하는 格差의 現象이 深大해진 結果, 한편으로는 不可缺하거나 緊急하지 않은 商品들이 生產財 및 消費財分野에서 다 같이 量產되기도 하고(販賣되지 않는 在庫品의 量的 增加現象이 이를 證明한다) 또 한편으로는 缺乏된 또는 量的으로 不充分한 商品들의 目錄이 끝없이 延長되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macrostructure 및 microstructure 內에서 同一하게 國民經濟의 不均衡이 점점 明白해진 것이다. 그 重要原因은 再言할 必要도 없이 中央計劃化된 經營體制의 方法과 이에 따르는 生產量爲主의 企業態度에 있음은 分明한 것이다. 그 結果 企業의 收入과 消費者欲望의 實質的 充足과의 사이에 直接的인 關係가 成立되지 않으며, 企業의 主目的은 社會一般의 需要充足에 있는 것이 아니라 計劃의 內容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따라서 當然히 企業經營의 效果와 國民經濟의 效果를 背馳하게 까지도 만드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生產改良의 具體的方法을 創案하는 機能은 企業보다도 中央機關의 것일 수 없으며, 더우기 그 合理的인 管理·適用을 保障한다는 것은 中央機關의 本來의 領域과 크게 違背되는 것이다. 이 點이 바로 保守的 進步的 理論을 莫論한 모든 論者들이 指摘해온 缺陷이었던 것이다.

『어떤 經濟制度의 效率도 오늘에 와서는 生產의 增大, 技術進步의 速度보다는 훨씬 緩慢하게만 增大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社會가 生產諸力에 合當하도록 組織할 수 없는 경우, 社會가 점점 더 大量의 生產諸力을 空虛하게 浪費한다는 것을 意味한다.』[12] 이런 觀點에서 본다면 蘇聯經濟의 組織이 生產諸力에 合當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否定하는 方向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生產力이란 內容이 變化 增大해 갈수록 이를 包容하는 形式으로서의 組織의 變化는 必須要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蘇聯經濟의 改革의 推進은, 社會主義經濟 및 經營의 原理原則에게 그 限界線이 豫定되어 있으면서도 一種의 構造的 變革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를 自問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하튼 現今의 蘇聯經濟의 動向을 計劃과 企業의 關係에서 볼 때, 後者의 自律性의 擴大에 의한, 經濟構造的 矛盾과 能率不振의 矛盾의 打開를 위한 努力으로 結論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改革의 努力이 그 實效를 거두려면, 現存하는 諸制約的 要素들을 排除

(12) 「페드렌코」, 「오레이닉」, 「첼냑」, 「構成的經濟學」, 一橋大學『經濟研究』, 第16卷 4號, p. 331.

해야 할 것이며, 이 要素들을 不完全하나마 列擧하면 다음과 같은 點들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企業의 上位機關들은 企業에 대하여 當然히 計劃指導를 계속할 運命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計劃은 이를 設定한 것만으로는 充分치 않으며 그 完遂를 위한 統制가 必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社會主義的 企業의 第一原則이라고 하는 計劃原理를 뒷받침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스플란」이 적어도 中期 또는 長期의 計劃을 排他的으로 樹立할 權限이 있는 이상, 이 統制는 必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短期計劃이 어느 機關의 管掌下에 들어가건 間에 「고스플란」이 展望하는 테두리 안에서 決定될 것이며, 中央의 計劃이 作用하는 限, 그 뒷받침으로 統制活動이 必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外部統制의 原理는 企業의 自主性에 대한 威脅이 아니겠는가? 勿論 企業은 社會主義下에서 獨立採算(Khozraschot)이 原則이므로 自主性은 維持된다고 應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獨立採算의 原則은 「리베르만」以前에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計劃統制와 獨立採算와의 關係에 있어서 相互侵犯이 不可能한 限界의 區劃이 實際로는 힘든 作業임을 推測할 수 있다. 勿論 進行중인 改革으로 因하여 이러한 問題들은, 輕減될 것은 事實이겠으나, 抹消될 것이 아닐 것이며 또 理論的으로 可能한 企業의 最大의 自主性은 實際로는 그 維持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統制의 必要性은 企業의 利益이 社會의 利益과 合致되도록 해야 하는데서도 發見할 수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企業은 利潤率이란 指標를 위하여 賦與된 自主性을 誤用하면서도 社會에게 相應할 만큼의 利益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短期計劃이 企業의 所管으로 移讓될 경우에 이 統制는 더욱 必要해질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企業의 自主性은 어디까지나 相對的 槪念으로서 存在할 것이며, 能率을 위한 自主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自主性에 대한 統制를 하게되는 矛盾도 可能할 것이다.

둘째로 提起되는 問題는 價格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從來까지 各企業은 販賣代錢을 收金은 하지만, 그것이 自己製品의 實際原價에 一致하거나 對應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蘇聯에서는 價格形成의 合理的 「메카니즘」이 缺如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國家의 主觀主義에 의하여 選定된 順位의 觀念에 따라서 決定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結果, 諸價格間의 關係와 그 價値的關係가 對應할 수 없고 價格變化는 價値變化와 一致하지 못해온 것이다. 이렇게 가령 例를 든다면 石炭의 都賣價格은 實際生產原價보다도 19%나 낮았다고 한다. 따라서 正當한 根據도 없이 어떤 企業은 赤字運營을 難免하는 反面, 他企業은 黑字運營이 充分히 可能해 진다. 여기에다 各產業, 各企業들의 具體的인 經營條件, 事情등을

添加할 경우, 企業成果의 正確한 測定은 도저히 不可能해 질 것이며, 經濟改革의 實效를 全無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經濟 및 經營의 改革의 實效는 이 價格의 合理的 形成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이는 分明히 至難하고 複雜한 作業이 될 것이다. 이 點을 是認하고 蘇聯에서는 1961年以來 그 準備段階에 突入했고 1966年에는 새로운 價格體系의 適用이 있을 것으로 豫定됐었으나 아직 앞으로도, 4年의 期間이 必要한 것으로 觀測되고 있다. 새로운 價格體系形成의 難點은 伸縮性있는 價格體系가 中央機關 單獨으로는 決定할 수 없는 反面에, 自然發生的으로 偶然히 價格이 形成되도록 放置할 수도 없다는 點에 있다.

參考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세 範疇의 價格體系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① 固定價格 (原料, 燃料, 電氣, 產業裝備, 基本的 食糧, 大量消費品등의 價格으로서 이는 中央이 一方的으로 決定 또는 變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現在 全生產品의 64%가 이 固定價格으로 되어 있다.)

② 制限價格 (中央에서 下限과 上限을 決定하되 各企業이 그 幅의 限度에서 自主的으로 決定한다. 全生產品의 29%에 適用하고 있다.)

③ 自由價格 (全體經濟 및 國民의 生活水準에 큰 變動을 주지 않는 重要치 않은 商品에 適用되며, 需要와 供給의 關係에서 決定되고 全生產品의 7%에 適用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過半數商品은 여전히 中央의 專決價格이며 完全한 自由價格은 극히 그 比重이 작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蘇聯에 適用시키더라도 價格의 現實化는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價格의 지나친 自由化는 一種의 社會主義原則에 대한 背反으로 생각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라고 하므로 價格의 問題는 앞으로도 繼續하여 重大한 缺陷으로서 作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市場에 관한 問題를 살펴 보면 特異한 現象을 發見하게 된다.

從來까지는 市場이란 槪念은 社會主義體制와는 兩立할 수 없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認識되어온 것이 事實이다. 이는 社會主義國家에서나 非社會主義國家에서나 同一한 現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一般的으로는 計劃化된 社會的 協同 및 生產은 市場의 法則에 따라서 生產의 方向이 決定되는 體制와는 對蹠되는 것으로 되어왔다. 또 計劃化는 社會主義 固有의 領域인 反面에 市場은 資本主義 特有의 槪念으로 생각되어 온 것이다. 蘇聯內에서까지 이렇게 믿어져온 事實은 蘇聯의 計劃生產이 市場의 實需要에 對應하는 生產이 되지 못해온 事實에 의해서도 證明된다. 그 結果, 여지껏 生產과 需要의 不調和, 消費된

勞動의 量과 消費商品의 最終的인 效果의 不一致를 發生케 해온 것이다. 그리고 計劃 및 指導의 諸上位機關들이 供給企業製品의 消費企業으로의 流出을 一方的 直接的으로 指令함으로써, 販賣企業과 購買企業間의 市場的 關係가 形成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市場槪念이 「리베르만」理論을 動機로 하여 擡頭하게 된 것이다. 과연 「리베르만」의 利潤槪念은 市場을 前提로 한 것이며 消費機關과의 直接契約關係도 需給關係에서 惹起될 市場法則을 援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進行중인 經濟改革도 이 市場槪念을 擴張시키고 있음은 明確하다. 이러한 市場槪念의 導入은 西方側에게 社會主義自體의 內容의 變質로 解釋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普通 認識하고 있는 市場이란 것은 抽象的 市場으로서 『具體的 市場에서 決定된 特定財貨의 價格이 널리 通用되는 空間的 時間的으로 制約된 需要供給의 交涉範圍 즉 去來範圍』[13]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는 賣買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總體的 關係(需給關係)와 거기서 客觀的으로 形成되는 價格構造를 前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서는 이 賣買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總體的關係는 적어도 最近까지는 主觀的인 計劃當局의 決定權限이었으며, 價格構造도 客觀的으로 形成되지 않고 있으므로 社會主義下에서 論議되는 市場槪念은 資本主義의 그것과는 判異한 것으로 우선 斷定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오타 시크」(Ota Sik) 〔「체코슬로바키아」의 科學院會員〕는 資本主義的 市場과 社會主義的 市場의 差異를 說明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4] 『計劃化된 社會主義的 生產도(資本主義的 生產과 同一하게 : 筆者註) 市場의 要求를 可能한 限 最大로 充足시켜야 하며, 市場에서의 商品의 實現도 生產過程內에서 消費된 勞動의 社會的 效用性의 決定的 基準으로서 考慮되어야 한다.』 고로 社會主義的 生產도 『市場의 要求에 合致되도록 發展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生產과 市場은 資本主義的 生產과 市場과는 判異한 것』인데, 前者는 『社會主義的 生產企業과 社會主義的 商業機關만이 介入하는 市場』이며 또 특히 『生產財는 個人에게가 아니라 集團的인 生產企業에게만 販賣됨으로써 後者와 相異하다』고 한다.

그 結果 蘇聯에서 論議되고 있는 市場은 社會主義的 市場이지 資本主義的 市場 또는 自由市場은 아니라는 結論이 나온다. 그런데 社會主義의 最特有의 槪念은 역시 計劃化의 原理이겠으므로, 市場 自體도 이 第一義的 原理를 逆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편 企業은

---

(13) 吳相洛, 『「마케팅」原論』, 1963, p. 22.

(14) "La réforme de la gestion économique en Tchécoslovaquie", revue *Problèmes Ecenomique*, d.1 23 nov. 1965.

商品의 生産이나 流通에 있어서 國家의 代行機關이란 性格을 지니므로, 結果的으로 보면 이 市場도 國家意思에 따라서 相異해질 것이며, 이런 뜻에서 國家는 항상 最終的인 指揮者가 될 것이다.

社會主義的 市場이 自由市場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 論據에서도 찾을 수 있다. 自由市場下에서는 企業은 利潤을 追求하기 위하여 價値法則의 支配를 받으면서 資源의 合理的 利用을 實現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社會主義的 企業을 前提로 하는 경우, 價値的, 貨幣的 計算은, 資本主義的 經濟와는 相異하게, 人間의 意思에서 相對的으로 獨立한 價値法則에 의하여 決定되지 않고, 國家가 主觀的으로 이 價値法則을 創造하고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兩體制下의 市場이 相異해 지는 根本要因은, 따라서 社會主義下의 國家가 全經濟의 指揮者로서 君臨하는 事實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리베르만」도 이러한 國家의 機能을 認定하고 妥當한 것으로 보고 있다. 反面 그는 企業이 供給을 需要에 合致할 수 있도록 自主的으로 調節할 수 있을 것을 要求하고 이에 의하여 需要供給關係의 自動的 調節, 利潤實現의 可能性, 生産性의 向上등의 諸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自律的 需給調節의 機能은 其實은 客觀的 法則下에서 合理的인 價格構造가 形成된 市場이 存在한다는 條件下에서 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國家의 計劃 및 統制 活動下에서 어떻게 이 企業의 自律的 活動이 그 期待되는 機能을 發揮할 것인가? 이렇게 企業의 自律的 活動과 國家의 計劃 및 指導活動과의 關係가 重要한 問題로 登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傾向은 前者를 擴大시키고 後者를 萎縮시키는 過程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價格構造의 問題를 再檢討해 보면 問題는 그렇게 簡單하지도 않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大部分의 重要生産의 價格들은 固定價格이거나 下限과 上限이 定해진 制限價格이며 自由價格은 全體經濟에 큰 影響力이 없는 狹小한 範圍의 商品에만 適用될 경우, 中央의 價格統制機能은 過去와 大差없는 것이 될 것이며, 價格이란 重要한 要素를 個別企業이 市場狀態에 即應하여 決定할 수 없게 되므로, 市場法則에서 期待되었던 企業의 自律的 調節機能은 그 實效를 보지 못하게 될 可能性이 濃厚한 것이다.

價格問題를 除外하고 理論的으로 생각하여, 計劃 또는 注文生産을 實施할 경우, 그 途中에 그것이 需要를 充分히 反映한 것인가 아닌가의 與否를 確認한 다음, 旣定의 計劃 또는 注文을 必要限度內에서 矯正하는 方法을 假定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從前까지는 國家經濟計劃이 이러한 需要實態를 全然 無視해 왔었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指摘해온 바 있는 非能率, 構造的矛盾등을 惹起해온 것인가? 또는 過度할 程度로 頻發했던 計劃의 中間修

正이 能率과 合理的構造를 保障해 왔는가?

結論的으로 말하여, 肥大해진 計劃指導機關들의 活動이 機動性 또는 伸縮性을 잃고 行政의 原則들이 經濟의 諸原則을 대신함으로써 생긴 過去의 弊端은 市場의 作用만으로는 그 解決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計劃, 企業, 市場이라는 三者의 諸機能이 合理的 技術的으로 再調整되고 確保됨이 必要할 것인데, 이는 蘇聯과 같은 尨大한 經濟에 있어서 그리 容易한 일은 못되는 것이다.

네째로 蘇聯에서 아직도 檢討중에 있다고 하는 「資本에 대한 報酬」의 問題에 관하여 言及될 수 있다.

蘇聯에서는 近來까지 資本을, 그 費用을 支拂할 必要가 없고 生產性決定에 影響이 없음으로써 그 代價를 支拂할 必要가 있는 生產要素의 하나로 認定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즉 生產手段(勞動手段 및 勞動對象)은 그 自體에 의하여 附加價値가 發生되는 것이 아니므로 生產的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代價를 支拂할 必要도 없고 다만 資本의 回復을 위하여 製品原價속에 生產手段의 消耗(즉 減價償却에 該當함)를 補償하기만 하면 充分하다고 믿어온 것이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一企業에게 資本을 投下한다는 것은 一種의 社會資源의 分散 使用을 뜻하는 것으로 理解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投資惠澤을 입는 企業은 이러한 社會的 損失을 相殺할 수 있어야 하며, 그 結果 企業의 費用속에 生產手段의 消耗補償費 이외에도 標準投資效率에 該當하는 負擔도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되기에 이른 것이다. 과연, 甲企業에 投資한다는 것은 乙 또는 丙企業에게 投資하여 發生可能한 相異한 資本의 收益率을 斷念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甲企業은 資本에 대하여 一定한 負擔을 지는 것이 當然한 것이며, 이 負擔은 一種의 資本利子로 解釋될 수도 있다. 이런 立場에서 「트라페즈니코프」는 一種의 資本稅를 賦課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資本稅賦課의 提案은 其實은 資本의 無償提供에서오는 非經濟를 防止한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各企業은 資本을 無償으로 處分할 수 있으므로 資本維持·補強에 관한 責任을 지지않게 되며, 生產手段의 浪費傾向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生產的資本의 經濟的使用은 考慮되지도 않으며 投資가 過度하게 肥大해 지는 例가 續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稅는 企業義務의 不履行的 懲戒가 될 것이고 優良한 成果에 관해서 그 補償이 되도록 作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資本市場에서 資本의 供給者와 需要者의 對決이 있을 수 없는 蘇聯에서는 投資效率의 標準을 計劃當局이 算出 決定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投資效率이 資本稅의 基準이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들은 아직도 檢討중에 있고 그 實施의 與否, 時期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있고 않으므로 이는 앞으로 注目될 問題중의 하나일 것이다.

VIII. 結　　論

經濟에 대한 企業의 自主性 및 經濟와 企業間의 伸縮性등을 擴張한다는 모든 試圖에도 불구하고 蘇聯에서는 計劃의 實現이 最上目標로 되어 있음은 이미 上記한 바와 같다. 「리베르만」論爭의 展開過程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大膽한 提案도 其實은 企業의 必要限度內의 自由化, 生產活動의 效果的 結合方法을 選擇할 수 있는 能力의 賦與등에 관한 것이 限度였다. 이렇게 가장 進步的인 論者로 알려진 「넴치노프」도 企業의 自主性을 計劃原理에 더욱 忠實하게 하기 위한 方策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이 點이 蘇聯經濟改革의 限界가 分明히 定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가령 蘇聯의 企業들이 自由自在로 利潤競爭에 突入할 수 있는 모든 方法이 許容되었다고 假定해도, 企業의 經營責任者들은 企業活動의 成果를 스스로가 所有하거나 스스로의 計算을 위하여 再投資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社會主義的 經濟가 生產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前提로 하고 있는 限 計劃에 의한 目標樹立 및 이를 위한 中央集權的 投資計劃등의 原則들은 拋棄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反面에 推進中인 經濟改革의 眞正한 意味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即 計劃의 指令을 가장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 位置, 方向, 促進劑등을 企業에게 賦與함으로써 能率不振 構造的 矛盾 등을 打開한다는 데 그 眞目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利潤은 原動力이라기 보다는 經營成果를 測定하는 全般的 標識의 하나가 될 것이며, 「리베르만」自身이 말하듯이 計劃原理를 破壞하는 것이기 보다는 補強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需給이 合致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着眼된 供給企業과 消費企業間의 直接契約關係라든가, 生產原價를 正確히 反映할 수 있는 價格體系의 問題등에 관하여 볼 때, 이들은 經濟改革的 措處라기 보다는 經濟로 하여금 正常的인 秩序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을 뜻할 것이다. 反面에 官僚的 中央集權主義의 大幅 減少의 傾向은 資本主義國家의 國有企業의 能率問題와 같은 경우로서 社會主義經濟의 生產性向上에 必要했던 것이다.

다만 以上의 改革內容에는 補償과 制裁의 「메카니즘」을 前提로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集團의 財產 또는 企業의 管理 運營을 어떤 特定個人에게 委託할 경우, 그 監督機關이 이 管理者의 過誤를 알지 못하거나 適期에 懲戒할 수 없다면, 또 經營成果의 增大를 獎勵할 수 없다면 이 管理者의 管理活動은 必然的으로 不幸한 結果를 招來하고 말 것

이다. 이렇게 企業成果의 測定을 위한 저울이 絶對必要하며, 따라서 利潤의 役割, 奬勵制度의 改善, 資本에 대한 報酬의 問題등이 論議되어온 것이다.

이미 많은 論者들이 蘇聯經濟가 가까운 將來에 두 類型으로 分類될 것이라고 豫見하고 있다. 즉 첫째의 類型은 生產이 消費者需要에 忠實할 수 있는, 一般的으로 보면 輕工業에 屬하는 分野인데 대하여 둘째의 것은 그 生產水準이 國家的 利益에 의하여 決定될 重工業分野, 國民生活水準에 深大한 關係가 있는 消費財分野등으로 區分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價格體系의 形成이 問題로 될 때 벌써 생기는 趨勢일 것이며, 여기에 「리베르마니즘」의 限界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經濟改革의 實質的인 具現者로서의 經營幹部들의 惰性이 問題視된다. 이 經營幹部들의 被治者的 習慣에서 오는 無氣力 또는 惰性은 그리 쉽게 改變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例를 들면 農業分野에서 蘇聯은 1955年以來 이러한 惰性을 抹消하기 위하여 許多한 措處를 取해 왔으나 그 實效는 보지 못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惰性의 거창한 勢力을 꺾기 위한 精神的 改革이 細則的 또는 技術的 改革과 同時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敎授]

〈*Summary*〉

Liberman's Theories and Its Practices

*Bin-Gou Kang**

I. Introduction

The idea has been accepted for a long time that profit is what keeps going capitalist enterprises and economy. Under capitalism, therefore, the pursuit of maximum profit seems to be its aim without preestablishing any kind of coordination with or program for the whole of society. This kind of reasoning remains true, even if one favours the theory of the purpose of enterprise that has been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most outstanding scholar in this field being P. F. Drucker, who refuses maximization of profit as the purpose of enterprise by replacing it by "adequate profit" as the first responsibility towards society. In the same way the emerging of managerial society does not oppose the above reasoning either, because the parts played by the capitalist so far will only be taken over by the managers of industrial enterprises.

For these reasons it is astonishing that the notion of profit, characteristic of capitalist society, is being introduced into the socialist economy of USSR. The association of the terms of "profit" and "communism" has, at first glance, a shocking effect. The introduction of profit has come about after a series of discussions, the contents of which have been called Libermanism. Liberman,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Kharkov, becomes the exponent of new theories in 1962 and after the personal changes at the Kremlin, the discussions of Libermanism are led with more fervour while experiments with a number of his new ideas are being carried through.

We have, therefore, reasons to ask: Are the USSR going to let themselves

* The author is assistant professor of business management,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pire by capitalism and are they trying to adopt profit as a motor for social production? Does this mean a confession of failure concerning economic planning practised until now? Reality is less spectacular: there is no economic revolution in the USSR. The experiments carried out now are rather meant to improve planning than to undermine its foundations. If profit is being introduced into this system its func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capitalism.

II. Evaluation of P. F. Drucker's Theory of Profit

P. F. Drucker thinks that his theory about profit and profitability may be applied regardless of any difference in economic or social systems. Thus, according to him, "profit figures are the only thing the management has to go by when it makes his decisions—in a collectivist and planned as well as in a free-enterprise economy. They are inevitably the first yardstick and gauge of performance." And "profitability operates as much under collectivism as under individualism, under government control and government ownership as in a free-enterprise system."

The validity of this indiscriminating application is dubious. Profit under socialism, admitted and considered necessary already by Lenin, is clearly subordinated to the principle of planned national economy. The fact that all enterprises in the USSR are nationalized makes profit outside planned economy impossible. And therefore the fulfilment of the plan is "the first yardstick and gauge of performance." Consequently, profit, being "a necessity of survival" to the enterprise for Drucker, need not be so under socialism. The enterprise or its survival does not depend on the profit it makes but rather on the decision of a state which may even close down a profitable enterprise if it is thought necessary. Moreover, there may be enterprises operating with a deficit foreseen in the plan. Under the planned economy therefore, profit is not "the first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its first duty toward itself and its workers." Drucker further defines profit as "the risk premium that covers the costs of staying in business—replacement, obsolescence, market risk and uncertainty,"

and that "profit insures the supply of future capital for innovation and expansion." But if an enterprise estimated as important within the plan should not have made the profit estimated in the plan itself, the state will take over the risk premium and supply of future capital. Moreover, there cannot exist any market risk under socialism because there is no free or capitalist market.

Finally, we may state that Soviet enterprises, even if they range within the scale of self-financing, are not and will probably never be absolutely autonomous. They all depend on the national plan. In this case, Drucker's theories can only be applied to industrial enterprises in capitalist countries. The fundamental difference stems from the fact that capitalist enterprises work in a system of free market and liberal economy, while socialist enterprises are working principal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lan.

III. Liberman's Theories and the Controversy Concerning Libermanism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in USSR economy and management, Liberman suggested the following points of a reform: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and the regional economic councils (Sovnarkhozes) must radically improve the means of supply of material as well as of technical needs of enterprises, the present hierarchy bringing about an attitude of irresponsibility.

Individual enterprises must be authorized to fix their plans independently. Plans enforced from above that only consider the output, force enterprises to dissimulate their reserves and keep them from operating according to their full capacity. Instead of having the Gosplan fix very strict plans annually, its powers would be reduced to only drawing up general outlines being forwarded through the sovnarkhozes. They would contain mainly control numbers and stretch over a period of two or three years.

In order to make planning more attractive, enterprises should have the possibility to get into direct contact with suppliers and consumers within the limits set by the control indices.

The managers would have large influence and, after having consulted with

their own committees of production, would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 structure and the personnel of the enterprise within the general frame of members and salary budget assigned to them by the Gosplan;

To refix salaries more or less raised above the standard type salary;

To refix prices in order to enhance the functioning of any section of the enterprise;

To extend loans for housing projects and other social services.

These propositions are directed towards a large decentralization. Their main importance would be to make the managers, up to now blind executives of a strict plan, real heads of enterprises.

These propositions of Liberman have been attacked by two sides; by those reproaching him of going to far and by those thinking his suggestions of reform insufficient. The conservative theorists hold the opinion that the index of profit proposed by Liberman is not applicable in all enterprises of different sections and they favour a less strict system of leaving a certain margin for each case where the plan has to be adopted. For them a general spirit of reconciliation in economic administration would be sufficient to dissolve a too rigid tutelage. The result, according to them, would both benefit the fulfilment of the plan and safeguard the rights of the enterprises.

Other more progressive theorists, *e.g.*, Nemchinov, a member of Academy, criticize that Liberman has not brought up any new idea concerning the formation of prices, nor the fiscal system of the enterprises. Moreover the index of profit does not show anything but the relation between profit and productive capital. It shows a result but does not go into the details of production. The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of the enterprise under the planning authority must therefore be changed and the enforced plan has to be substituted by a plan based on a mutual contract. The volume of production and the provided quality would no longer be considered as a task but as an obligation originating in the freely negotiated contract between the planning offices and the enterprises. Secondly, prices should be remunerative, according to quality,

novelty of a product, etc. In the third place, an enterprise must be able to obtain, without too long delay, all equipment and material necessary for its production. Last, not least, the mentality of the managers has to be transformed; they must learn to care personally for economic administration of their productive capital.

IV. Experiences with Libermanism and the Contents of Economic Reforms in the USSR

The procedure of putting theoretical suggestions into experimental application has more and more often been practiced in USSR in many fields. These experiments have not only been carried through in the case of Libermanism, but also, *e.g.*, applying to forms of organization for operation in enterprise, new methods of financing, techniques of accounting, methods of establishing plans for enterprises, reforms of the premium system, new systems for encouraging innovations, etc. But the experiment that roused rumours in capitalist countries, speaking of a "return to the free market," "sovereignty of the consumer," "abandoning of planning," was the one that dealt with direct contracts between supplying enterprises and their customer enterprises. This method has been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two enterprises, "Bolshevichka" and "Maiak", which are both manufacturers of ready-made clothes. The plan was made up for them after contracts had been signed with the customer. This means that both enterprises make first contracts with retail firms that have, on their side, to respect the demands of their customers. The contracts define the quantity, the quality, the prices etc. of the product. The plan is approved afterwards by the central planning offices. Moreover, both enterprises are free to choose whatever method of execution they want and are thus freed from the habitual normalization in the field of use of raw material, labour, etc. Finally, the result of their activities is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their production plan (as before) and to the level of their benefit (new system).

After six months of experimenting in both enterprises, positive results have been announce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seems to follow the same way

now,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forms to a greater number of other enterprises. It decided also in favour of a progressive reform towards greater subtlety in economic organisms and plans. The philosophy of this reform program consists in assuring harmony between national planning and balanced management of individual enterprises.

V. Evaluation of the Soviet Economic Reform and Its Problems

Even if we can speak of great revisions in Soviet economy we must however delimit it. All measures towards reform are neither concerned directly with the principle of planned centralization nor, of cours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tate as owner of the means of production. Doubtlessly the reform gives a greater margin of initiative to the managers, but the planning offices continue, directly or indirectly, to fix from above the prices of the majority of products, the volume and the product line. They thus control important factors of profit variation. Therefore, with or without Liberman, the enterprise is not entitled to plan independently its rentability.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dimensions and the limits of these reforms it is necessary to get some insight into the reasons underlying these changes. For several years a low efficiency could be observed in USSR economy. The rhythm of production increase had, in the past, been due to an extensive development of economy (extension of the quantity of production, like increase in productive capacity by construction of new units and enlarging of old ones, increase of labour for industrial production, etc.) However, having exhausted these extensive sources, it seemed to become more and more necessary to stress intensive means of development in order to assure a larger output. Roughly speaking, the system of planned management was judged to be incapable of speeding up this process. It was considered rather as an obstacle towards quick development.

In other words, Soviet economy has, in recent years, suffered from serious deficiencies in its production structure. These influenced at the same time the "macrostructure" (the proportion between diverse branches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microstructure" (the relation between the various categories of production within a certain branch). Therefore many signs of distortion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duction structure (supply) and real needs (demand) began to make themselves felt more and more. In practice there was a prolific stock of articles not immediately necessary to demands of daily life (an alarming increase of unsold material was the result), while the list of lacking or insufficiently supplied goods became longer and longer. Unrealistic and unilateral plans have been an obstacle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it is not for the central planning office to discover concrete means for better production and even less to assure rational exploitati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adically change the correlation an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ocialist planning system in USSR, the enterprises and the market.

In order to adopt these revisions efficiently the solution of the following problems is prerequisite:

(a) As the realization of the plan remains the supreme objective of a Soviet enterprise, the central and the control organizations will continue to interfere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management. But even if a great flexibility and subtlety is aimed at within this system, it will always remain difficult to assure them practically, especially in a large country like USSR.

(b) The enterprises used to collect money for their sales, but the amount did not represent the real value of the merchandise, for prices did not correspond to its value. The formation of prices was based on a subjective decision by the state, so that the relation between prices did not correspond to relations of values. That is why certain enterprises made deficits while others had large profits,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question of good or bad management. If,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otion of rentability is introduced, all prices have to be revised first. But this is a task of immense complexity.

(c) The socialist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capitalist or free market. In order to assure the productivity and rentability of enterprises they should be

able to act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the needs of the market. However, in USSR, even the market is a product of the plan deciding the general trend of development of this same market. It is, of course, not always possible to guarantee a healthy mechanism of the market for the central planning offices. Therefore, the market is easily a victim of the subjectivity of the state.

(d) Formerly the planning authorities in USSR believed that the means of production could not be productive because they did not render an added value. They would only have to be replaced or reproduced, which would be the same as depreciation. But the present Soviet economists think that the disposition of productive capital should not be free, but that enterprises must pay a certain amount, besides the depreciation, corresponding to the normative efficiency coefficient of investment. They therefore hold it necessary to impose taxes or some kind of interest rates on the capital. These propositions aim at assuring a more rational usage of productive capital. As a matter of fact, the capital given free of charge led to an irresponsible attitude of the managers and to waste of equipment.

(e) It is a difficult though necessary task to change the attitude of the managers who were only used to blindly obey orders. In order to stop the enormous factor of stagnation that has crept into the hierarchical machine, a spectacular change in spirit and method seems to be more necessary than detailed reforms.